

# 열대야에 모기와와의 전쟁...잠 못드는 밤

### 올초 잦은 비·늘어난 강수량 광주 지난해보다 43% 급증 일본뇌염 매개 모기도 발견 일선 지자체 방역활동 집중

광산구에 사는 직장인 김수진(여·42)씨는 요즘 열대야와 함께 찾아온 영~하는 모기 소리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올해 모기는 예전보다 훨씬 많고, 더 악센 듯 하다"면서 "열대야 때문에 안그래도 힘든데 모기까지 잡느라 잠을 설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예년보다 많은 모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유독 모기가 많아진 것은, 올초 강수량 덕분에 모기유충이 번식할 수 있는 물웅덩이가 많이 형성되는 등 최적의 서식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이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지난 4월 평년(80.3~117.8mm)보다 많은 강수량(140.5mm)이 쏟아지면서 모기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9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광주에 설치된 모기포집기에서 1954마리의 모기를 채집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채집한 1369마리에 비해 42.7%(585마리)나 증가했다. 특히 숲 모기의 경우 6월 한달간 524마리가 채집되면서 지난해 같은기간 잡힌 138마리에 비해 3.7배(447마리) 급증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1차례씩 광주 도심의 공원, 산, 호수 등 장소를 정해 모기 채집을 하고 있다. 모기 채집은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기후가 아열대화되면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카 등 주간활동성인 숲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 병원체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다.

정재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비가 적게 올 경우에는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물웅덩이가 부족해 모기 개체수가 줄어들고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모기알이 씻겨 내려가 개체 수가 줄어든다"면서 "올해 모기가 유독 기승을 부리는 것은, 모기서식에 적절한 평년보다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영향인 듯 하다"고 말했다.

모기떼가 기승을 부리면서 일선 지자체에서도 방역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경보발령 기준 이상으로 발견된 탓에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김자영 서구 보건행정과 질병관리담당관은 "지난 6일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돼 하수구, 공터, 밀집가 등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전남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 발령기준 이상으로 발견되는 등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전남에서는 지난 10일까지 22마리의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된 데 이어 광주에서도 지난 12일 2마리가 확인됐다. 광주의 경우 예년보다 2주 이상 빨리 확인됐다.

한편, 작은빨간집모기는 눈·발·눈·저수지·웅덩이·배수로 등 물이 고여 있는 장소에 산란·서식하고,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8~9월에는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며, 주로 밤 10시부터 활발하게 흡혈활동을 한다.

일본뇌염의 잠복기는 7~14일이며, 고열·두통·복통·무기력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수막염·뇌염으로까지 이어진다. 심한 경우 혼수상태로 이어지며 30%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김현명 기자 young@kwangju.co.kr



신나는 옥수수 따기 체험 광주시교육청의 2018 농촌체험학습에 참여한 광산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복구 금곡동 금곡팍스 테이에서 수확한 옥수수를 들여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두환 5·18 명예훼손 손배소송 9월13일 1심 선고

### 광주지법 결심공판...전씨측 변호인 "의도 없었다" 강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편향했다며 5·18단체, 유가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9월13일 내려질 전망이다.

19일 열린 이 소송 결심공판에서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오는 9월 13일 오전 10시 203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5·18단체 측 법률대리인

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생각을 밝힌 정도가 아닌 사실 왜곡이 너무 많다"며 "더는 역사 왜곡이 없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5·18 유가족과 회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며 "과거 사실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생각을 밝힌 것 뿐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인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지난해 6월 제기됐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씨앗'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5·18 관련 단체가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이를 받아들였다. /박진표 기자 lucky@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2    달뜨기 13:07  
해질 19:45    달지기 00:08

엄청 더워요

무더위가 지속되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 높겠다.

광주	맑음	25/36	보성	맑음	22/34
목포	맑음	25/34	순천	맑음	25/35
여수	맑음	26/34	영광	맑음	23/34
나주	맑음	23/36	진도	맑음	23/34
완도	맑음	24/34	전주	맑음	24/35
구례	맑음	23/36	군산	맑음	24/34
강진	맑음	23/34	남원	맑음	24/35
해남	맑음	22/34	흑산도	맑음	24/30
장성	맑음	23/35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먼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동~동	0.5
	먼바다(동)	북서~북	0.5~1.0	북동~동	0.5~1.0
	먼바다(서)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0:18
여수	12:57	20:20
	08:32	02:17
	21:08	15:16

◇ 주간 날씨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	☀	☀	☀	☀	☀	☀
26/37	25/35	25/36	25/36	25/35	25/35	25/35

## 전남교육청 주민추천교육장공모제 내년 도입

전남도교육청 및 22개 시군 교육청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 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교육자치위원회가 내년 초 꾸러진다.

전남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민과 전남도, 22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교육에서의 민·관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전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전남도교육청에서 인수위 최종보고회를 열고 장석웅 신임 전남교육감이 내건 38개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밝혔다.

인수위가 첫번째로 언급한 교육자치 위원회는 전남교육청과 도청, 시·군의 협력 태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

교육의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과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추천교육장공모제와 관련된 사항도 논의한다.

내년부터 주민추천교육장을 도입해 4년 이내 22개 시·군 교육청 전체에 주민추천공모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수위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없는 친환경식품 확대, 교육지원청 지원기능 강화, 학교기본운영비 10% 증액,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학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계획도 밝혔다.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는 농어촌 에듀버스(스쿨버스) 확대 및 100원 택시 운영에 대한 계획도 내놨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자담배 혈전 위험 ↑ 美대학팀 연구결과

전자담배가 혈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텍사스 대학 약학대학의 파티마 알스불 교수는 전자담배의 증기가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소판의 과잉반응을 유발, 혈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쥐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18

일 보도했다. 쥐를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증기에 하루 두 번씩 5일 동안 노출시킨 결과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혈전이 형성됐다고 알스불 교수는 밝혔다. 이는 전자담배의 또 다른 위험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한보청기 www.maxo.co.kr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3-GN1-10-0067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만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 · 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능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 · 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프로'**    **맥소'스텝'**    **맥소'크리스프'**    **맥소'스코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 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 · 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 ·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권장해 드림으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RIE(8-16채널) 고급제품 대할인 특별행사!! 보조금으로 고급제품 무료구입!!** (청각장애등급 2-6급 소지자)

**365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강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미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광주·전남 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 본점 **063)251-4999**